

GGP 돈사 신축으로 거듭나는 경북종돈

“고능력의 유전자로 최대의 생산성과 강건함을 추구한다”



취재 : 안혜성

포업의 도시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
서 우수 종돈을 양돈농가에 보급함
으로써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북종돈을
찾았다.

경북 종돈은 지난 해, 어려운 경제 상황하
에서도 고품질의 종돈을 일선 양돈농가에 공
급하고자 교배사,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육
성사로 구성된 GGP 돈사 6동(1,015평)을 신축
했다.

경북종돈 이희득 사장은 1979년 경기도 양
주군에서 종돈업이 아닌 일반 양돈업을 처음
시작했다. 그 후 1988년 현재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으로 농장을 이전하고 그 이듬해인
1989년에 종돈사업을 개시하고 종축개량협회
에 혈통(고등) 등록을 시작했다.

경북종돈은 세계 3대 육종회사인 캐나다
“제네틱 포크”로부터 선발지수 150 이상의 고

능력 종돈을 직수입해서 GGP 모돈으로 사용
하고 있다.

종돈업을 시작한 후 한국종축개량협회 능
력검정을 받는 국내 120개 종돈장 중 혈통등
록 5위의 농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수출농가 모돈 공급
종돈장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돼지를 자식같이 여기고 아침, 저
녁으로 체크하는 것만이 우수한 종
돈을 생산할 수 있다**

이희득 사장의 자택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
는데 이 사장은 20년 넘게 양돈업을 해 오면
서 자택에서 잠을 자는 날은 1년에 2주일도
안된다. 그 이유는 아침에 눈을 뜬 후와 저녁
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돼지의 상태를 직접



▲ 경북종돈 이희득 사장이 신축 돈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찰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 때문이다.

이 사장은 8명의 직원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장이 돼지들을 일일이 관찰하고 점검함으로써 돼지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이 있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우수한 종돈은 우리 나라 현실과 환경에 맞는 돼지이다

이 사장은 우수한 종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우수한 종돈은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종돈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성적이 아무리 좋은 종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현실과 환경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우수한 종돈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혈통이 좋은 종돈을 수입하는 데는 뚜렷한 목적

이 있어야 한다. 현재 종돈장에 있는 돼지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보충해야 할 점, 예를 들어 산자수, 유선 발달, 이유 두수의 증가, 비생산일수의 단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종돈을 선택적으로 수입해 와야 한다”고 이 사장은 주장했다.

경북종돈은 한국 양돈의 미래를 예견하고 10년전부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 양돈국을 견학하며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종돈 생산을 위해 연구, 노력해 왔으며 한국형 품종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육종으로 판단한 캐나다 최고 육종회사인 “제네틱 포크”의 우수 종돈을 직수입하여 고능력의 유전력을 가진 강건한 종돈을 생산하고 있다.

경북종돈의 특징

경북종돈은 세계 3대 육종회사인 캐나다 제네틱 포크로부터 선발지수 150 이상의 고능력 종돈을 직수입해서 GGP 종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자수, 유선 발달, 이유두수, 공태일수



▲ 지난해 신축한 GGP 돈사 전경

등의 개량을 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종돈을 수입해 오고 있다.

또한 종돈의 사양 관리에서도 남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자수 많은 모돈의 자돈을 산자수가 적은 모돈에 보내는 것(일명 양자보내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자보내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13두의 자돈을 생산한 모돈의 경우, 3두를 양자보내기를

면과 인력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채취한 정액을 인공수정용 정액으로 제조하기 위해 희석시킬 경우 우수한 정자가 수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자연교배시 주입되는 정자의 수와 인공수정용 정액에 포함된 정자의 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종돈의 요건은 성적이 우수한 것에

경북종돈은 한국 양돈의 미래를 예견하고 10년전부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 양돈국을 견학하며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종돈 생산을 위해 연구, 노력해 왔으며 한국형 품종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육종으로 판단한 캐나다 최고 육종회사인 "제네틱 포크"의 우수 종돈을 직수입하여 고능력의 유전력을 가진 강건한 종돈을 생산하고 있다.

실시하면 모돈이 13두의 자돈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한 자돈 두수 만큼을 키울 수 있는 산유 능력이 되는 모돈에게 양자보내기는 능력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경북종돈의 종돈들은 모두 자연 교배를 통해 임신을 시키고 있다. 이희득 사장은 인공수정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수 종돈을 생산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 교배를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종돈은 현재 GGP 모돈 350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모돈을 인공수정하기 위해서는 웅돈 5~6두만 보유하면 된다.

그러나 경북종돈은 자연 교배를 위해 40두의 웅돈을 보유하고 있다. 인공수정 대신 자연 교배를 시킬 경우, 종돈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

못지 않게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야 한다. 경북종돈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질병의 근원을 제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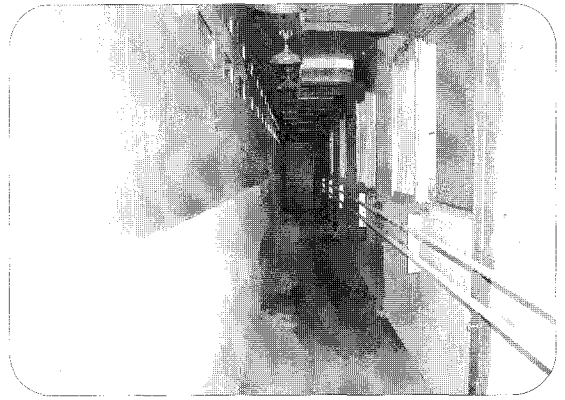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은 농장 300m 전방에서 소독을 한 후에 농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농장 앞에서 또 한번 소독을 실시하고 돈사간 이동할 때마다 발판 소독조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경북종돈은 1일 2회씩 돈사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복도는 물론 돈사내 통로에 이물질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북종돈의 철저한 관리하에 생산된 종돈은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에 적합한 종돈이다. 경북종돈은 이같이 철저한 관리하에 생산된 종돈들 중에서도 상위 30%



▲ 경북종돈 임신사 내부 모습.



▲ 1일 2회 소독으로 복도와 돈사내 통로가 이물질 하나 없이 깨끗하다.

의 알토란 같은 종돈만을 농가에 판매하고 이들을 제외한 종돈은 비육돈으로 출하하고 있었다.

경북종돈은 지난 1996년부터 종돈의 관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경북종돈 모돈의 성적은 모돈 회전을 2.38, PSY 24.2두, MSY 23.5두, 복당 이유 체중 69.7kg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비육

돈의 경우에는 비육돈 사료효율 2.36, 110kg 도 달일령 154일, A+B등급 출현율 93%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경북종돈의 모돈을 분양받은 2농가와 위탁 농가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사료요구율이 2.59로 사료요구율 3.2와 비교했을 때 출하 시까지 두당 사료 2포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

본지 캠페인

~~비선호 · 바이기 부위~~



“수출부위”